



2021년 3월 19일  
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

##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18 차) - 일본정부의 「긴급사태선언(제 2 회)」의 종료에 따라 -

일본정부로부터의 「긴급사태선언(제 2 회)」이 3월 21일로 종료됨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개미사」 중지를 3월 21일(일)로서 해제 합니다.

이제부터, 당분간 교회활동은 「대응 제 14 차」에 따라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번 선언종료는 코로나 19의 확대증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감염 재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3밀(密)을 피해주시고, 한층 더 긴장하여 주시고 주의 깊게 행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된 제한 내용은 아래의 세가지 입니다.

1. 주일미사 횟수의 제한 : 일요일 1회, 토요일특전미사 1회
2. 미사는 「일본어미사」 혹은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며, 신자들의 기도나 독서의 일부를 외국어로 하는 미사」 만을 허가합니다.
3. 성당활동은 각 본당의 운영에 관한 최소 불가결한 것 (장례 등) 을 제외 한 것은, 계속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오.  
( 또한, 코로나 19의 감염이 리바운드 되어 다시 확대되는 경우에는 새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 성주간의 전례에 대해

주님수난성지주일 신자들의 행렬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목요일 세족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 때에 신자들의 행렬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파스카성야 빛의 예식 때에 신자들의 행렬을 하지 않고, 성당안에서 빛의 입당을 기다려 주십시오.

부활대축일 미사는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한 경우에만, 2회 거행 할 수 있습니다.

이상